

**동우컴퓨터**

내 심정이 이렇다

가을결기가 시작되는 요즘 가을장마가 이어졌으니 농부의 심정이 어떨까. 애써 지어놓은 벼와 과일이 장마에 푹푹 떨어지고, 햇볕을 더 받아 완속되어야 하는데 비에 축 젖어 있으니 농부의 답답한 마음을 그 누가 알랴. 나 역시 영적 농부인지라 바로 농부의 심정과 같다. ‘농부가 무게 다 잡고, 품 다 잡고 어떻게 농사를 짓나?’ 하며 나는 벼타이도 풀어헤치고, 소매도 걷어붙이고 강단에 섰었다. 내가 애써 가꾼 영혼의 열매가 잘 맺히기만 한다면야 나 하나쯤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일했다. 그런데 알 곳은 가을장마 같은 코로나 때문에 다 익은 곡식들이 푹푹 떨어질까 봐, 더 익어야 맞이하는데 설익을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미지근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자들이 믿음을 아예 팔아 먹고 세상으로 나갈까 봐 조바심이 든다. 그래서 나는 더욱 낙타무릎이 될 뿐이다.

또한 나는 모를 더 내야 하는데, 묘목을 더 심어야 하는데 짹짹 갈라진 논바닥을 보고 있는 농부의 타는 듯한 심정이기도 하다. 가야 할 길은 먼데, 움짹달짝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세계 각처에서 나를 부르고 있건만 갈 수 없으니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농부처럼, 나도 하늘만 올려다 본다. “그래, 하나님 외에 도울 자 누구까?” 혼잣말을 되뇌다 문득 시편 121편의 말씀이 떠오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2).

그렇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흥해 같은 세상을 건낼 수 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자굴 같이 사나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삼킬 듯 달려드는 불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버지, 불려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고 찬양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시 91:1~2).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영상을 보며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목사님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며, 병을 고침 받는 역사들을 솔하게 보아왔으면서도, 실제로 온 가족(부모, 형, 형수, 조카)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한 인간에게 국한된 그의 죄성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은 악한 귀신의 역사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데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주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장로님 스스로도 그 영적 위기를 방언기도를 통해 벗어나게 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 만일 장로님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사형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건 당일,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속살거리는 귀신의 소리에 이끌려 그 참담한 살인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약한 체력에 장애까지 있던 그가 여러 구의 시신들을 들어 옮

이 만났던 그 사형수, 악한 귀신에게 사로 잡혔던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수궁 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0~12).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영적인 눈으로

빛이 밝으면
어둠은 멀리멀리 떠난다

뽕우 이초석 목사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기도하자!

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항상 기도하고 성령충만을 받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막 16:17),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눅13:32). 그런데 실제 교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박 장로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생생하게 그 실상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박 장로님이 그 희대의 살인마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다. 그러나 실제 만나보니 너무나 평범하고 유약해보였고, 도무지 그런 살인극을 벌일 만한 위인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

기고 구멍이를 파서 묻기까지 한 것은 또 다른 존재의 역사가 있었다는 반증이었다. 장로님이 보아도 그런 힘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귀신의 역사였던 것이다.

귀신은 이제 그 사형수마저 죽일 작정으로 자살을 종용했고, 자책감에 빠진 그는 정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박 장로님과 그의 면담을 통해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회개의 살인마로 사형을 언도 받은 한 유약한 인간이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를 통해 교도소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된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박 장로님

간파하지 못하면 100% 당할 수밖에 없다. 육적인 눈으로 분쟁에 휘말리면 영적 소경이니 악한 영들의 역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모든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영적 소경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 한 사형수의 변화를 통해 교도소 전체 700명이 넘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기히 상상할 수 없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한은택 목사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2:19~26)

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다

왜 안내위원들이 주일 꼭두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상관없이 나와서 안내를 설까요? 왜 성가대원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온종일 연습하고 봉사할까요? 왜 어린아이들의 온갖 투정도 다 받아주며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과 뽀글뽀글하며 힘들게 예배드릴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보다 귀하다는 물질인데 월급을 받건, 사업을 하건 매달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왜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수입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까요? 왜 주일과 수요일에 때마다 감사예물을 드리고, 서원예물도 드릴까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는 말씀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6~7)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와서 안수를 받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6)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

왜 성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먼저 대접할까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마10:40)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데 왜 그럴까요? 그들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는 말씀을 믿기에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반자요, 바늘과 실과 같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렇

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보입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환난과 핍박의 폭풍에 휘말려서 벌써 이초석이란 존재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이 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물 없는 사막과 같고, 눈 덮인 산야와 같은 모진 세월을 초연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라고 당당히 외치는 것도, 귀머거리나 소경, 앓은뱅이 등 각색 병을 앓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고 명령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기가 힘들니까? 헌금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봉사는 꿈도 못 꾸니까? ‘안수는 뭐 하러 받나?’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은 죽어봐야 알지!’ 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에 연감생심 행동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런 당신을 두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줄 알고자 하느냐”(약2:19~20).

물론 행함만으로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롬3:20). 그러나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신실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동을 보고 나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하였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창22:16~18)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다. 왜 축복하셨다고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총회장 이초석 목사

22:18), 즉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2: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약2:24).

소경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목청껏 불러 소원을 이뤘습니다(막10:46~52).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는 테스트를 받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치욕을 참아내고 딸의 병을 고침 받은 것입니다(막7:25~30).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군중 틈을 뚫고 들어간

것이요(마9),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네 친구로 하여금 지붕을 뚫게 한 것입니다(막2:1~5).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옵니다. 라합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상전 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수2:11)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안전하게 피신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약2:25). 그런 행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예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녀와 가족들이 죽임을 면하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히11:31).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당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죽은 오라비 때문에 낙담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 말을 믿거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거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돌을 옮겨놓으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좀 오래 전의 일인데, 제게 주례를 부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집회를 나갔는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결혼식 날짜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 청년에게 다른 목사가 대신 주례를 서면 안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목사에게 온 답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그 청년이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시지 않으면 결혼 안한답니다.” 그건 그 형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마10:12~13)는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저에게 생떼를 쓰다시피 강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앞에 제가 어찌겠습니까? 모든 일정을 찢어두고 급거 귀국했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 행함 = 기적과 축복’이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약2:22).

여러분에게 행함이 없는 것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도, 시간 탓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히 행동으로 옮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선 길은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며 세상과 다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이가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답답해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고,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심한 경우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미워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으며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천국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옮겨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형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의 형통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붙잡고 죽음의 순간까지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이 하나둘 사라질지라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식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 자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집이 어딘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깜빡깜빡할지라도 이것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에, 날마다 ‘예수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신랑,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의 순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아무리 열심을 내었더라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 모든 삶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를 고백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주실’ 주님을 그리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은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고 당당히 외쳤던 것처럼, 천사에 받들려 천군천사의 열렬한 환호 속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되기를,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선 길이기 때문입니다.

Henry Han

:: To Be Succeeded ::

No turning back!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송 가사에는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에서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일가족의 순결한 신앙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비밀리에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어 끌려온 가족을 앞에 두고 아버지는 마을 지도자로부터 예수를 부인하라고 수차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No turning back!(결코 돌아서지 않으리)”을 외쳤고, 결국 어린 자녀들부터 아내, 자신까지 모두 차례차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며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 때문이 아닌, 비대면 예배로 인해 알게 모르게 증식하고 있는 편안함과 안일함이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거대한 고난의 소용돌이와 경제개발계획 등의 재건의 시기를 겪으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오던 신앙이 좀 살만해지니 한풀 꺾이더니, 이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전염병의 영향 아래 양극화를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성경은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신다(마13:30).

또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 공력이 불타면 구원은 얻되 해를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했다(고전3:10~15).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불문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날에 받을 상과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서는 더욱 경종을 울린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 약속하셨고, 날마다 자기의 중심과 행위를 돌아보아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계22:12~14). 하나님 아버지의 회초리와 징계는 맞고 집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돌아와 함께 살자는 사랑의 메시지다. 따뜻한 물에 드러누워 점차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개구리와 같이 되지 말고,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을 듣고 돌이켜 열심을 내자.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도전이 답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구현해내지 못할 때, 혹은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날 때면 어렵게만 느껴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나 영상 강의 등을 통해 배우고 따라해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별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려운 것들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도 용기를 내어도 전하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하게 되고, 해보면 그것이 별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JCA카데미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모험과 도전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웅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목적이 있더라도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으며 담대하게 모험과 도전한다면 언젠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이루게 되고, 어느 샌가 한 단계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구호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된다는 착각을 버립시다.

이은성



:: 소망의 언덕 ::

대접하는 대로

저는 가끔 초등학교 큰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갑니다.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기 시작한 것은 4살 무렵이었는데, 그때부터 아들은 저와 목욕탕에 가는 일을 무척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부모님께서는 생일상을 봐주시겠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생일상을 받은 아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아버님과 함께 3대가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목욕탕에서 물놀이를 해도 다른 분들께 큰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몸이 급격하게 자란 초등학교생이 탕 안에서 노는 일은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아들에게 주의를 주고 목욕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어린아이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세신을 해주시는 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생이 물장난을 하거나 물을 튀기게 되면 보통의 반응은 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른께서는 “아이고, 왕자님이 물놀이 하는구나! 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

이 신기하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아버님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목욕탕에 들어가시기 전 작은 봉투에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20개 정도 담아 목욕탕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노는 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너그러웠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경험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남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보이자 그 분들에게 어린 아이도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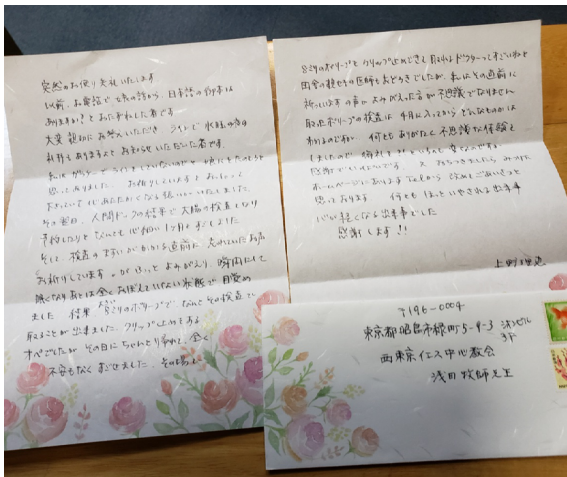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에 ‘관계는 대접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사람들 간에 서로 무심해져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예수종신교인들은 큰 것이 아닌 작은 섬김과 대접으로 더욱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현승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신앙에세이 ::

총회장님 저서를 번역하면서



어느 날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사시는 上野 理恵(우에노 리에)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에 유학 간 딸을 통해서 총회장님 저서 내용의 일부를 전해 들었으며 일본어로 된 저서가 있는지를 물어왔다. 나도 모르게 지금 준비 중이라고 대답하는데, 그것이 번역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리고 리에 씨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 간증을 하며 기도해드렸다. 그리고 통화 마지막에 “기도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약속대로 그분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리에 씨에게서 아주 예쁜 꽃이 그려진 편지지와 봉투로 편지가 왔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예쁜 편지를?’

Good News

애플화를 이룩한 세계 최고의 IT기업가 스티브 잡스는 부와 명성을 다 얻었으나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와 명성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록펠러도 53세의 나이에 6개월을 넘기지 못한 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

그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다. “갑자기 편지로 실례합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어책은 없냐며 물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답을 해주셔서, 또 라인으로 라이브 찬양 예배가 있다며 알려주셨는데, 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딸에게 부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기도할게요’라고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었

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정밀건강진단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고, 재차 대장정밀검사 예약을 하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한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정밀검사를 위한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되는 순간 잊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목사님 말이 들리며 그 순간 잠이 들었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결과는 꽤 큰 8mm의 Polyp(혹)을 Clip(클립) 설치하고 제거하는 수술을 했지만, 당일엔 집으로 갈 수 있어서 그동안의 불안도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8mm의 Polyp(혹)을 Clip(클립) 설치하고 제거하는 일은 대단한 것이라고 친척인 의사가 놀라했습니다. 나는 정신이 없어지기 직전

하던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선한 일에 모두 다 사용한 후에 죽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학교를 짓고 재단을 설립하여 원도 한도 없이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죽을병에서 고침 받고, 자신의 회사 주식이 폭등하여 이전보다 재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97세까지 장수의 복을 받아 누렸는데, 이 땅을 마감하기 일주일 전까지 담임목사님과 골프를 쳤고, 죽음 직전에 기도를 받고 생을 마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목사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거한 혹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고맙고 신기한 체험을 했기에 그저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면 전화 드리고, 다시 한 번 인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심이 되고 치료가 되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上野 理恵(우에노 리에)

한국에 유학 간 이 분의 딸에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여 병 고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찾고 찾아 연락을 하신 이 분은 이 종에게 번역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분으로 감히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편지의 주인처럼 주의 종이 번역한 총회장님의 저서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일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일본인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의 저서를 잘 번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 냉수 같아서 능히 그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잠25:13).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은 뒤에 가는 길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겠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영벌이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종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상화평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백신의 원리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우리는 이제 어두운 터널의 끝이 오기를 기대한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몇몇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백신은 감염병에 대해 인위적으로 집단면역을 일으킬 수 있어 이 팬데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시스템을 면역체계라고 한다. 그 면역체계는 크게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눈다. 선천 면역은 백혈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등과 직접 싸우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체계이다. 반면에 획득 면역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이 항원을 막기 위한 항체를

만들어 우리 몸을 방어하는 체계이다. 획득 면역은 선천 면역보다 느리게 반응하지만, 한번 걸렸던 감염병을 기억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 감염병에 다시 걸리지 않거나 걸린다고 해도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 나타난다. 이것은 획득 면역을 일으키는 면역 세포가 다음의 적 침입을 대비해 ‘기억세포’로 오랫동안 몸속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 몸의 획득 면역계가 항원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을 백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영양분이 부족하여 약해진 세균이나 조각난 바이러스가 백신이 될 수 있다. 이 백신을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 몸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일으키

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으면서 획득 면역계가 그에 맞는 항체를 만들고 기억세포를 남길 수 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RNA 백신으로 새로운 유형의 백신이다. RNA 백신은 표면 항원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외껍질 모양 돌기인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만들도록 해 면역력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만 알고 있다면 설계와 생산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RNA가 쉽게 분해돼 유통보관이 까다롭다. 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영적 생활을 회복되는 그 날을 기대한다.

Dr. 조희경 집사

양보 없는 다섯 처녀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보충할 기름도 챙겨 갔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챙겨 나갔다. 이후 밤중에 기름이 떨어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자신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러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부탁을 거절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떠나버린다. 이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니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다. 하지만 이 장면을 오늘날 세상의 도덕과 윤리, 특히 크리스천들을 향한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세상이 보기에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요즘 시대에는 그 다섯 처녀가 자신들의 기름을 기꺼이 나눠주어야 옳다. 공평과 공정, 양보와 배려, 편견 없는 세상이란 이름으로 희생과 타협을 해야 옳다.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다섯 처녀들을 슬기롭다 하셨다. 소중한 자신의 것을 지켰기 때문이다.

세상은 말한다. 동성애, 성전환, 타 종교와의 신앙적 타협이 옳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사고방식은 구식이며, 교양 없는 야만인, 이성적이지 못한 고집불통이라고 한다. 이에 넘어가 신앙을 양보하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생기고, 타 종교와 타협하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세상이 보기에는 교양 있는 현대적 지식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자신의 기름뿐만 아니라 등까지 다른 이에게 줘 버리는 미련한 자이다.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기준을 내버리고 타협하는 순간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슬기로운 자가 될지, 세상이 올바르게 칭하는 자가 될지,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박천영 집사

